판화로 보는 '신과 함께'

원주 고판화박물관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 展
10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아미타경(덕주사본)' 등 100여 점

제9회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0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 전을 개최한다. 2018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열린 제9회 원주 세계고판화문화제를 기념하여 열린다.

이번 특별전은 만화의 원형인 판화의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동양 신들의 세계를 총 망라하는 것으로 '판화로 보는 신과 함께'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인들의 극락과 지옥을 상징하는 신들을 인쇄했던 목판을 비롯해 삽화가 들어있는 목판본과 불화 판화, 문자도, 동판화, 석판화 등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는 2006년 처음 개최된 이후 9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고판화 축제이며, 특히 유형문화제와 무형문화제가 결합된 융복합 문화제 축제로 유명하다. 인쇄문화의 꽃인 명품 고판화를 소개하는 특별전과 한, 중, 일 학자들의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전통판화 명인 시연회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벳, 몽골 등 나라별로 독특한 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으며, 올해 최초로 전통인쇄 인출장을 배출하기 위해 제6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은 '전통판화인출경연대회'로 개최되어 전통 인쇄 인출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전 '판화로 보는 극락과 지옥'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극락의 세계를 아름답게 표현한, 500여 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덕주사본 〈아미타경(강원도 유형문화재 152호)〉과 용천사본 〈아미타경(강원도 유형문화재 153호)〉으로, 책 상단은 그림으로, 책 하단은 글씨로 되어 있는 상도하문식으로 표현하여 독자들이 극락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작품으로는 광저우 불산에서 제작된 반야용선(극락으로 인도하는 배)을 새긴 '반야용선도', '아미타래영도' 목판을 비롯하여, 극락세계를 아름다운 채색 석판화로 표현한 남경 금릉각경처의 '극락장엄도' 판화가 전시된다.

일본 작품에서는 아미타부처님이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래영도'를 다양한 채색판화로 표현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극락세계를 대형 만다라 형식의 예배용으로 제작한 대형 '정토 만다라'와 '아미타경변상도' 불화판화가 소개되며, '무량수경 만다라' 판화는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

베트남 작품 중에는 대형 아미타래영도 목판이 눈여겨 볼 만하며, 티베트 극락관련 무량수불 대형 불화 판화도 눈에 띈다.

지옥을 상징하는 판화로는 고려시대 해인사에서 발행된 시왕판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에서 16세기에 만들어진 6지장보살과 8대 보살 중에 들어가 있는 지장보살 판화 등 7점의 지장보살 대형불화판화가 전시된다.


아미타경변상도(부분 · 사진 위)와 지장보살시왕 변상도.

중국 작품으로는 불교와 도교가 결합된 형태로 청나라 말기에 유행하였던 옥력보초류 고서를 비롯하여 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였던 목판들이 전시되며, 특히 불교의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신상지마(神像紙馬)'를 인쇄하기 위해 제작된 천도제 목판이 세트로 공개된다. '신상지마'는 돌아가신 영가를 위해 천도제를 지낼 때 의식용으로 사용하는 판화들이다.

일본 작품으로는 중국 원본을 그대로 복각한 '불설지장발심인연시왕경'과 극락과 육도윤회 지옥을 세 권으로 나누어 지옥세계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왕생요집'을 비롯하여 '감득전' 등 만화의 원형이 되었던 일본 특유의 다양한 그림책들이 소개되며, 지옥의 세계를 채색 만다라 형식으로 표현한 대형 '지옥도' 불화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몽골 작품으로는 조선시대 감로탱을 연상시키는 '지옥경'이 소개되며, 티벳 불화판화는 '육도윤회도' 목판을 비롯하여 신라의 '김교각 지장보살상'을 판화로 표현한 대형 불화 판화가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회를 기획한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의 역량이 총 망라된 대규모 전시회로,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 불교 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 받는 '극락과 지옥'에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 판화 등 100여 점을 선별했으며,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도, 동아시아인들의 생사관(生死觀)을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어 동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033)761-7885.


고산 혜원 作 '佛'.

왜 다시 선서화, 선묵, 선필인가?

특별선묵전 '고산 · 성각 선묵전 – 물속의 달 水月'展
서울 예술의 전당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기존 선묵과 다른 혁신 작품
고산 · 성각 스님 선묵 450여 점
현실비판적인 서예언어 구사
기계문명시대서 선묵 가치 재발견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선묵전이 열렸다. 쌍계총림방장 고산 혜원 대종사와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선화기능보유자인 망운사 주지 성각 스님(원각선원장)의 선묵특별전 '물속의 달 水月' 전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2층 전관)에서 열린다.

선화보존회와 (사)부산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특별전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한다는 점과 아울러 기존에 발표된 선묵과는 다른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성각 스님은 30여 년 간 20여 차례 선서화전을 하면서 원상과 동자, 법어를 중심으로 한 선묵을 선보여 왔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서와 행초를 뒤섞은 일자대자서 설치작품, 자작시 한글행초대자 연작 등 혁신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고산 방장스님의 대자 행초서 '佛'자를 비롯하여 성각스님의 ▲〈반야심경般若心經〉 270자를 전서와 행초서로 쓴 대자일자서(大字一字書) 270점 ▲'반야심경(般若心經), 화엄경약찬게(華嚴經略饌偈), 금강경(金剛經), 금강경찬(金剛經撰)' 전서8폭 대병, ▲행초 대자일자서(大字一字書) 35점으로 구성한 설치작품 '물속의 달 水月' ▲자작시를 전서 필획으로 행초서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12폭 한글연작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을 두꺼비를 통해 우화적으로 풍자한 작품 '정답은?' 등 총 450여 점이 전시된다.

이번 고산 · 성각 선묵전 '물속의 달 水月'은 주로 예술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서예를 추구하는 서예가들의 서(書)와는 조형미학이나 정신의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비판적인 서예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된다. 그래서 왜 지금 선서화, 선묵, 선필이 다시 부활 · 복원 · 활성화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 회향공연

정율 스님 힐링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11월 4일 오후 5시 부산 문화회관대극장
7집 음반 '돌아보니 당신' 발매



공연 포스터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이 11월 4일 오후 5시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사부대중에게 자신을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기 위해 2016년 12월 광주 공연으로 시작된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는 서울, 인천, 대구로 이어지면서 1만여 명의 관객이 힐링의 시간을 함께 했다. '인연'을 주제로 한 이번 부산 공연은 회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연으로, 정율 스님은 'Ti sarana(삼보께 귀의하는 노래)'를 시작으로 도선 스님, 정율 스님의 108인의 Buddha's 합창단, 샤카디타(비구니) 앙상블, BTN중창단과 함께 '좋은 인연', '인연',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등 10여 곡의 노래를 스토리텔링으로 선보이고, 살풀이춤의 원형으로 영가의 넋을 깨끗이 씻겨 극락으로 인도하는 춤 지전무도 선보인다.

아울러 정율 스님은 이번 공연에 맞추어 7집 음반 '돌아보니 당신'을 발매했다. 음반에는 정율 스님이 그 동안 콘서트를 통해 선보였던 '천의 손 천의 눈'을 비롯해 13곡이 담겼다.

뮤지컬 '원효'와 명동성당에서 '아베마리아'와 찬불가 '향심'을 선보여 큰 감동을 안겨준 바 있는 정율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 졸업 후 원광대와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캐나다, 대만, 태국 등에서 1천 회 이상 공연 활동을 펼쳐왔다.

Buddha's (010)2230-5498. 박재완 기자

